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설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대상과 범위
3. 시기 구분
4. 시기별 개관과 서술 주안점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 근·현대문학의 경우 우리가 익히 접해오고 연구 대상으로 삼아온 문학들은 중앙문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이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다. 그만큼 다른 분야 못지 않게 서울 편중이 심한 것이 우리 문학과 문학연구의 현실이다.

문학사는 어떤가. 과연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문학사가 한국문학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가. 지역문학이 서술 대상이 되고 있기는 한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지극히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개별 지역의 문학들이 각기 특수한 여건과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전개되어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왔는데도 그런 점이 거의 무시되어 온 게 사실이다. 말하자면 한국문학사가 온전하게 서술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근대문학사 서술의 문제점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지역문학사 서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¹⁾

그 동안 근·현대 제주문학에 관한 문학사적인 논의는 김영화·고시홍·양중해 등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김영화는 「제주문학 80년—1915~1994」과 「일제시대의 제주문학」(『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제주대 출판부, 1998)) 등을 통해 근대 이후 제주문학을 사적(史的)인 흐름 속에서 기술하였다. 기존에 알려진 자료에다 새롭게 발굴한 자료들을 보완하여 체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홍은 「제주문단사」(『제주문학』제13집(제주문인협회, 1984)), 「제주문학의 어제와 오늘」(『제주 문화예술 백서』(예총제주도지회, 1988)), 「문학」(『제주도지』제3권(제주도, 1993)), 「문학」(『북제주군지』하권(북제주군, 2000)) 등에서 제주문단의 흐름을 정리해 놓고 있다. 일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문단의 흐름을 정리한 선행 업적들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양중해는 「제주문단의 형성 과정—제주문단사 서설」(『제주문학』제19집(제주문인협회, 1990))을 통해 1950년대 제주문단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여러 논의들은 본격적으로 서술된 제주문학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²⁾

현시점에서 20세기 제주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은 한국문학사의 보완에 기여함은 물론 근대 이후 제주인들의 정신사적 궤적을 추적하고 정립하는 일도 될 것이다. 제주문학사를 올바르게 써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
- 1) 양영길은 「한국 근대문학사의 서술 양상 연구」(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에서 “중앙 문단 중심의 문학사 서술에 대한 극복은 여러 지역문학사 서술을 통하여 각 지역의 정서를 비롯한 문학사의 장기지속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142쪽)고 밝힌 바 있다.
 - 2) 물론 문학사가 제대로 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연구와 비평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제주문학은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의 논의들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그 서술의 발판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은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술을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 그 서술의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시기를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어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격적인 문학사 서술 단계의 글이 아니기에, 문학사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 개관만을 약술하면서 해당시기별로 문학사 서술에서의 주안점을 나름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상과 범위

제주도의 경우 19세기와 20세기의 분기점에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있었다. 1898년에 ‘방성칠란’이 있었고 1901년에 ‘이제수란’이 일어났다. 궁교롭게도 두 개의 큰 민란을 치르면서 제주의 19세기가 마무리되고 20세기가 새로이 열렸다. 이러한 민란은 민중들의 근대적인 자각과 연관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렇게 20세기에 들어서자 제주사회의 전반적인 성격도 크게 탈바꿈한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이때부터 제주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했다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³⁾ 그 이후 제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4·3’과 한국전쟁 등을 겪으며 20세기의 전반기와 중반기를 보냈고, 그 후반기에는 감귤농업의 진흥과 관광개발 바람 등으로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20세기 제주문학사는 이런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전개되었다. 즉, 20세기 제주문학사란 근대가 열리고 현대에 이른 20세기라는 시간의 흐름에서 이루어진 제주문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세기 제주문

3) 조선 전체에서 볼 경우에는 1876년 개항과 함께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편입된 것으로 본다. 김윤희·박은숙·이현주·하원호, 『세계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과 국민경제 형성의 좌절』, 강만길 엮음,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역사비평사, 2000), 30쪽.

학사는 곧 제주의 근·현대문학사를 뜻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면 20세기에 이루어진 어떤 것들이 제주문학사의 서술 대상에 속하는가. 제주문학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주문학의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김영화는 “<제주문학>은 <제주인의 문학>이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다며 다음과 같이 제주문학의 개념을 규정한 바 있다.

文學은 무엇보다도 意識과 情緒의 표현이다. 創作主體의 意識과 情緒에 따라 작품의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의식과 정서의 측면에 무게를 두고 다음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을 제주인으로 보면 어떨까.

첫째는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濟州文化나 風土를 몸에 익히고 공통의 氣質이나 價値觀을 가진 사람이다.(……)

둘째는 제주에서 태어나 幼少年時節을 제주에서 보내고 成年 이후 外地에 나아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幼少年時節을 제주에서 살았고, 그들의 父母가 濟州人이기 때문에 言語나 文化意識이 상당히 제주적인 것을 지닌 사람들이다. 이들은 外地에 살고 있으면서도 제주를 故郷으로 意識하고, 제주를 늘 생각한 사람들이다.(……)

셋째는 성년 이후 제주에 정착해서 작품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小說家인 최현식이다. 그는 6·25 때 제주와 인연을 맺고, 제주 여자와 결혼해서 30여 년 동안 제주에 살고 있다. 따라서 그를 ‘新濟州人’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의식과 정서의 측면에서 제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쓴 작품이 제주문학이라는 견해다. 필자도 기본적으로 위의 견해에 동의한다.

4) 김영화, 「현대문학과 제주문학」, 『탐라문화』제15호(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95), 257~258쪽. 여기서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작가들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겠는데, 김영화는 글의 말미에서 “성년 이후 제주에 건너와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면서 제주문화와 풍토가 몸에 밴 사람도 제주인이고, 그가 내놓는 문학과 제주문학의 범주에 들어간다”(270쪽)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각각 함경도와 서울에서 출생하여 제주에 정착한 지 수십 년에 이르는 최현식과 나기철의 문학은 자연히 제주문학에 속한다.

창작주체인 작가를 기준으로 하여 제주문학을 정의하는 것이 가장 객관성이 확보되며 문제를 적게 노출시킨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순히 작품의 소재를 기준으로 삼아 지역문학을 논의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컨대 이청준의 소설 「이어도」(1974)가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주문학으로 볼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다만 제주문학을 논하면서 주변적으로 혹은 부차적으로 언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청준의 문학은 지역문학 차원에서는 전남문학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런 태도를 폐쇄적이라거나 배타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한국을 소재로 하여 외국인(국적만이 아니라 민족도 다른 경우) 작가가 쓴 작품을 한국문학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문학사 서술과 관련하여 본다면,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학이라는 지리적인 기준의 개념도 덧붙일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학사에서는 문단 형성과 작품 창작에 영향을 준 사건이나 작가, 작품 등이 무시될 수 없으므로 제주인이 아니어도 제주에 머물면서 문학 활동을 한 경우를 비중 있게 취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이처럼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진 문학이라는 개념도 도입해야 한국전쟁기에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학활동 등이 20세기 제주문학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제주 고전문학사를 서술할 경우에 조선시대의 유배문학도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20세기 제주문학사는 20세기에 제주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문학을 중심으로 제주도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진 문학을 부가적으로 포함하여 그 서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3. 시기 구분

문학사 서술을 위해서는 시기 구분이 필수적이다. 그 시기 구분은

일반사(一般史)를 염두에 두되 문학 현상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의 근·현대문학에 대한 시기 구분은 김영화와 고시홍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

김영화는 제주 근·현대문학사의 시기를 ① 일제강점기(1915~1945), ② 동인활동기(1946~1964), ③ 중앙문단 편입기(1965~1994)로 구분한 바 있다.⁵⁾ 선구적 논의로서 제주문학사 시기 구분의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견해에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시기 구분의 기점에 관한 것이다. 해방을 기점으로 첫 시기와 둘째 시기를 나눈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겠지만,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1964년까지를 두 번째 시기로, 1965년부터를 세 번째 시기로 구분한 것은 아무래도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 그 기점을 기준으로 시기를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그 글에 나타난 앞뒤의 문맥과 정황으로 보아 1965년부터 중앙문단 진출이 본격화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인 듯 하지만, 거기에도 모호한 점이 있다. 1950년대 후반에 등단한 제주 출신 문인이 4명, 1960~64년에 등단한 문인이 2명, 1965~69년에 등단한 문인이 5명인 것을 보면,⁶⁾ 65년 이후가 중앙문단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그다지 변별성 있는 시기라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한 가지는 시기 명명에 관한 것이다. 명명의 층위 등에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고 본다. 첫 번째 시기에는 '일제강점기'라는 일반사에서 적용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문학사 용어로서의 특징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세 번째 시기에는 문학의 흐름과 관련된 명명을 하고 있으나, 세 번째 시기를 '중앙문단 편입기'로 규정한 것은, 물론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주제

5) 김영화, 「제주문학 80년—1915~1994」, 『변방인의 세계—제주문학론(개정·증보판)』(제주대 출판부, 2000), 18쪽.

6) 1950~1960년대 등단 문인의 수는 위의 책, 27~28쪽 내용을 기준으로 하였다.

적이지 못하며 중앙 종속적인 용어로 비취질 수도 있다. 마치 제주문학의 지향점이 중앙문단으로의 편입에 있는 것인 양 오인될 우려도 있고, 지역문학의 측면에서 보면 '편입'이라는 것이 오히려 퇴보하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용어가 아닌가 한다.

고시홍도 최근에 제주문학사의 시기 구분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① 일제강점기(1915~1945), ② 제주문단의 형성기(1946~1960년대), ③ 중앙문단 편입기(1970~1990년대)로 제주문학의 흐름을 나누고 있다.⁷⁾ 김영화의 견해를 다소 변형하였으나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본다. 두 번째 시기에 관한 사항만이 조금 다를 뿐이다.

우선 시기 구분의 기점에서 보면, 두 번째 시기와 세 번째 시기를 나누는 기점이 김영화의 견해와 다소 다른데, 그는 두 번째 시기를 1964년에서 1969년으로 5년 정도 늘려 잡았다. 시기 명명에서는 두 번째 시기를 '동인활동기'에서 '제주문단의 형성기'로 바꾼 점만이 다르다. 그러나 그는 왜 1970년부터 세 번째 시기로 잡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시기 명명을 달리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도 해방 이후 1960년대까지를 피난문인들의 영향으로 문학 열기가 확산된 이후 동인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문단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보았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는 앞서의 견해들을 참조하여 문학과 문단의 흐름을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20세기 제주문학사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에 대한 명명을 시도해 보았다. 역사적인 맥락과 문학적 현상의 특징들이 동시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 ① 일제강점기 신지식인들의 활동과 제주문학의 태동(1900~1945)
- ② 전란의 격변과 동인 중심 제주문학의 형성(1945~1969)
- ③ 산업화의 진전과 제주문학의 사회적 확대(1970~1999)

7) 고시홍, 「문학」, 『북제주군지』하권(북제주군, 2000), 472쪽.

첫 번째 시기는 20세기 벽두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로서 신학문을 습득한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문학활동이 이루어지던 시기다. 1910년대 전반기까지는 제주인들에 의해 발표된 신문학 형식의 작품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선구적 활동을 한 제주 출신 신 지식인(신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의 문학을 접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서울과 일본 등 외지에서 제각기 활동하였기에 서로 어떤 구심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역성을 뚜렷하게 드러낸 경우도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제주근대문학의 형성에 기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제주근대문학의 태동기라 할 만하다.

두 번째 시기는 해방 이후 4·3과 한국전쟁이라는 큰 전란의 격변을 겪으면서 주로 동인을 중심으로 활동을 벌였던 기간에 해당된다. 해방 직후에는 각처에서 활동하던 문인들이 모여 자생적으로 종합교양지를 내기도 했고, 전쟁의 와중에서는 역량 있는 한반도 문인들의 체류로 인해 문학 열기가 달아올랐으며, 그것이 196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문단적 조직이 형성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1950년대 후반부터는 이른바 등단 절차를 거친 문인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해방에서 1960년대까지는 제주문학이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며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시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70년대부터 급격히 이루어진 산업화 경향(감귤농업의 성장과 관광개발 활성화 등)과 정치적 상황 변화 등에 맞물리면서 제주사회가 급격한 사회변동을 체험하는 양상을 보인 기간이다. 이때부터는 4·3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제주문학이 한국문학 속에 의미 있게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한국문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전국적인 독자를 확보한 작가들도 등장하였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등단 문인들도 급격히 증가하였고, 작품 경향도 다양해졌으며, 문단 조직도 이원화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제주문학이 사회적으로 영역을 크게 확대해 나간 시기라고 할 만하다.

4. 시기별 개관과 서술 주안점

여기서는 위에서 구분한 시기에 따라 각 시기별 문학사의 개관⁸⁾을 언급하는 한편, 그 시기 문학사 서술에서의 주안점이나 유념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제시해 보기로 한다. 각 시기는 주로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이는 서술의 편의를 위한 측면도 있음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문학적 현상이나 정치적·사회적 격변 등과도 관련이 있다.

1) 일제강점기 신지식인들의 활동과 제주문학의 태동

이 시기에는 시가에 김문준·김명식·김지원·강관순·김이옥, 소설에 이시형·이영복·오본득언, 평론에 김명식, 문예운동에 고경흠 등이 제주 출신으로서 문학활동을 하였다. 문학활동의 주체였던 신지식인들의 대부분은 사회활동(운동)과 겸하여(혹은 그 수단의 하나로) 문학작품을 썼다.

(1) 1900~10년대 : 이때의 제주문학으로는 농촌계몽의 내용을 담은 가사인 김문준의 「농부가」(1915) 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김문준이 일본으로 건너가기까지 한동안 제주도에서 교편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때 문학작품을 쓰거나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김문준과 비슷한 활동을 한 지식인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에 제주도에서도 문학을 창작하거나 향유하는 분위기가 나름대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2) 1920~30년대 : 이때는 김명식·김지원에 의해 근대적 양식을 갖춘 작품들이 나왔다. 김명식은 1920년 『동아일보』 창간호에 「새 봄」 등

8) 시기별 문학사의 개관은 김영화와 고시홍의 선행 연구를 주로 참조하면서 작성하였음을 밝혀둔다.

두 편의 시를 발표하였는가 하면 「전쟁과 문학」(1938) 같은 문학평론적 성격의 글도 썼다. 제주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등단 절차를 밟은 시인인 김지원은 『조선문단』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1920년대에 적지 않은 분량의 시를 발표하였다. 강관순에 의한 「해녀의 노래」는 제주공동체와 관련하여 관심을 끈다.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KAPF)의 개편에 참여하고 사회주의 문예운동을 전개한 고경흠의 활동⁹⁾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1940년대 전반 : 1940년대 전반의 제주문학 작품들은 모두 일본어로 씌어진 것들이다. 한국문학 전반의 상황과 비슷하다. 이시형의 「이여도」, 오본득언의 「금지」, 이영복의 「발당님」 등의 소설과 「슬픈 해녀여」 등 김이옥의 시들이 전해진다. 제주 출신 소설가가 처음으로 등장한 점, 지역적인 색채를 반영한 작품들이 이전에 비해 많은 점이 주목할 사항이다.

2) 전란의 격변과 동인 중심 제주문학의 형성

4·3과 한국전쟁을 겪는 등 격변의 역사가 소용돌이쳤던 기간이다. 문학작품을 주로 다룬 종합교양지가 나오기도 했고 여러 동인들에 의해 동인들이 속속 간행되었다. 문학단체가 발족되었으나 아직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는 못했다.

(1) 1940년대 후반 : 해방이 되자 국내외 각처에서 활동하다가 귀향한 뜻 있는 지역문인들이 모여 문학을 위주로 한 종합교양지 『신생』(1946)을 간행했으나, 4·3이 발발함에 따라 그 활동이 지속되지는 못했다. 4·3은 제주 출신 문인들의 문학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

9) 권영민,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동맹 재건 운동」, 『한국 계급문학 운동사』(문예출판사, 1998); 김찬흠, 「20세기 제주인명사전」(제주문화원, 2000), 66~67쪽; 양광용·민병욱·박경수·김형민, 「일제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연극활동과 연극의식 연구」, 「일제강점기 제일 한국인의 문학활동과 문학의식 연구」(부산대 출판부, 1998), 215~227쪽 참조.

함으로써, 결국 제주문학의 발전에도 찬물을 끼얹었다고 할 수 있다.

(2) 1950년대 : 한국전쟁으로 인해 계몽목 등 한반도의 역량 있는 문인들이 제주에 체류하면서 문학 열기가 다시 고조된 시기이다. 문학을 중심으로 편집된 종합교양지 『신문화』(1952~53)가 3호까지 나왔으며, 『흑산호』(1953), 『비자림』(1958), 『문주란』(1959)으로 동인지 발간이 이어졌다. 제주도 최초의 문학단체인 '제주문학동호인회'가 1956년에 조직되었고, 1950년대의 막바지에는 김대현·김종원·양중해·최현식 등 중앙문단에 진출하는 문인들도 나왔다.

(3) 1960년대 : 이 시기는 대체로 1950년대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중앙문단에 진출하는 문인들이 늘었으며(김광협·김용길이 시인으로, 강금중·오성찬이 소설가로, 박철희·김영화·김시태가 평론가로 등단함), 『아열대』(1963) 등의 동인지도 나왔다. 1950년대의 제주문학동호인회가 '제주문학자협회', '제주문학협회' 등으로 이름이 바뀌다가 1968년 한국문인협회로부터 지부 인준을 받았으나 그다지 조직적인 활동을 벌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산업화의 진전과 제주문학의 사회적 확대

제주문학의 울림이 커지고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제주문학의 사회적 확대는 소설가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관련이 깊다고 보며, 4·3을 비롯한 제주역사에 대한 탐구 작업이 활성화된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1990년대 들어서는 제주문학이 꽤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다.

(1) 1970년대 : 1972년 한국문인협회 제주도지부가 재정비되고 제주문인협회 기관지 『제주문학』이 그 해 12월 창간되었다. 『제주문학』은 해마다 꾸준히 간행되면서 회원들의 창작물과 시의성 있는 기획물 등의 게재를 통해 제주문학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시에 한기팔·김용해·문충성·오용수·강통원·문영종, 시조에 정인수·이용상, 소

설에 현기영, 평론에 송상일·김병택이 등단하였다. 1970년대 후반에는 현기영의 4·3소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2) 1980년대 : 제주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고 그 울림이 사회적으로 크게 증폭된 시기이다. 1970년대 후반기를 거쳐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4·3문학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에 이르렀으며, 현기영·현길언·오성찬 등 소설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허영선·강방영·김수열·김승립·나기철·고영기·김광렬·김순이·양영길 등이 시로, 오승철·김공천·정태무·이인식·오영호·고성기·고웅삼·고정국·문태길 등이 시조로, 김진자·현길언·고시홍·고원정·오경훈·김길호·김석희·이석범·정순희·한립화 등이 소설로, 장일홍·강용준 등이 희곡으로 등단하였다.

(3) 1990년대 : 제주 출신들의 문단 진출이 크게 늘었으며, 다양한 경향의 작품들이 발표되었고, 문단조직도 이원화된 시기다. 1994년 문학의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젊은 문인들을 중심으로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가 결성되어 『섬의 문학』을 3호까지 내고 '4·3문학제'를 치르기 시작하면서 제주문단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1998년에는 이 제주민예총 문학위원회가 제주의 중견문인들과 결집하여 민족문학과 지역문학의 활성화를 내세우며 민족문학작가회의 제주도지회(제주작가회의)를 출범시키고 반년간지 『제주작가』를 펴내기 시작했다. 이것을 계기로 제주문단은 제주문인협회와 제주작가회의를 두 축으로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1999년에는 전국적인 시전문 계간지를 표방한 『다층』도 창간되었는데, 지역성과는 띄어 거리가 있다.

이상에서 제주문학의 시기별 개관과 향후 문학사 서술에서 주안점을 두어야 할 만한 사항들을 간단히 짚어 보았다. 일단은 위와 같은 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료 발굴과 정리, 비평 등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본격적인 제주문학사 서술 단계에 이르게 되면 자료의 경중이 가려져야

한다. 지역문학의 무게는 아무래도 지역민의 의식과 정서가 잘 반영된 작품들에 쏠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역성과 문학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작품들을 골간으로 하여 지역문학사가 구성되리라는 점이 어렵지 않게 예측되는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20세기 제주문학사 서술에 따른 기초작업으로 그 서설적인 논의를 시도해 보았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서술해 나간다면 20세기 제주문학사가 제모습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19세기 이전의 고전문학사까지 포함하는 제주문학통사도 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다만 여기서 새삼 강조해 둘 것은, 문학사란 단순히 과거의 문학과 관련된 사실들을 재확인하고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지니는 현재적 의미에 비중을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이다. 문학사란 “문학의 제현상들과 변화들을 역사적 과정 속에서 해명하는”¹⁰⁾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런 원칙과 관점들에 유념하면서 앞에서 제시한 제주문학의 흐름을 구체적인 제주문학사로 서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언하자면 이 글은 제주문학사 서술에 대한 논의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취지로 작성되었다. 따라서 시론(試論)적인 성격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이 글에서 제기한 몇 가지 문제들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미진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연구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10)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한길사, 1993), 49쪽.